

상품거래소·F1지원 임기내 성사를

■ 광주·전남 대선공약 이행 살펴보니

선거 때만 되면 '공약'이 난무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치부되기 일쑤다.

17대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대통령이 광주·전남지역에 내걸었던 대선 공약 이행률은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임기 중 추진이 완료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예 손도 대지 못한 공약사업이 30% 이상에 달한다. 임기 5년 차를 맞고 있는 시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진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지난 2007년 17대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의 광주 공약은 5대 분야 12개 단위사업이었다. 이 가운데 ▲광주연구개발(R&D)특구 지정 및 육성 ▲가전로봇 산업육성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영산강 살리기 사업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등 5개 공약만이 정상 추진되고 있을 뿐 나머지 사업은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착수도 못한 공약사업은 ▲문화상품 복합단지 조성 ▲국립 노화연구소 설립 유치 ▲한국민주주의 정당 유치 등 3개다. 문화상품복합단지 조성 사업은 대규모 자원 투입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고, 국립 노화연구소 설립 공약은 기획재정부가 생물공학 연구 등에 대한 중복투자를 이유로 거부하면서 사업 추진이 이뤄지

문화상품단지 이행 못해

J프로젝트는 되레 발목

지 않고 있다. 한국민주주의정당 유치는 광주시가 청와대와 중앙부처 등을 방문, 수차례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요원한 실정이다. 더디게 추진중인 사업도 4개나 된다. 동북아 상품거래소 설립 공약은 지난해 설립 추진 위가 구성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올해 설립 용역비 2억 원을 국비에 반영하는 등 뒤늦게 사업이 추진중이다. LED 조명도시 조성 사업도 2007년 대선 공약집에 포함됐지만, 지금까지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다가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서남권 원자력 의학과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도 정상 추진이 되지 않고 부분 추진되는 등 사업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이 대통령의 전남 공약은 14개였다. 이 중 6개 사업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춰선 상태다. 영암·해남관광레저형 기업도시(J프로젝트) 개발 공약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발목이 잡혀 있다. 4개 개발지구(삼호·삼포·구성·부동) 모두 땅 문제를 둘러싼 전남도와 농어촌공사, 농림부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데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가 하면 성격이 비슷한 전북 새만금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동력

광주·전남 MB 대선공약 추진 상황

■ 광주 정상추진

- 광주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육성
- 가전로봇 산업 육성
-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 영산강 살리기 사업
- 호남 고속철도 조기 완공

■ 부분추진

- LED 조명도시 조성
-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
-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 동북아 상품거래소 설립

■ 미착수

- 문화상품 복합단지 조성
- 국립노화연구소 설립 유치
- 한국민주주의 정당 유치

■ 전남 정상추진

- 2012 여수EXPO 적극지원
- 한국형 베네치아 디도해 해양관광 조성
- 영산강 뱃길 복원과 영산강 유역 개발
- 친환경 농산물 글로벌 물류 기지 조성
- 공동 혁신도시 조기 활성화
- 첨단 환경 멀티 클러스터 지정 육성

■ 부분추진

- 광안대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 미착수

- 서남해안 관광레저 거점 육성
- 무안공항 중개물류중심 공항 육성
- 국립대립센터 설립 및 국립 심혈관 센터 유치
- 한 황해권 전진기지 육성
- 동북아 우주 산업 클러스터 구축
- 호남고속철도 조기 건설



마저 약화시켰다.

F1 대회도 인색한 정부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황해권 전진기지 육성을 위해 내걸었던 ▲무안기지 산업단지 한국국제산업단지 개발 지원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개설 및 대학 병원 건립 공약도 임기 내 실현 불가능한 공약(空約)이 돼버렸다. 한중산업단지는 예초 면적(17.7km)이 대폭 줄고자하면서 표류하고 있고, 의대 건립은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국립대립센터와 국립 심혈관센터 유치 공약도 정부 국책사업에 반영되지 못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2017년으로 예정됐던 호남고속철도 준공 시기를 201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은 '헛말'이 됐고 그나마 경제

성을 들어 '무너진 고속철'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으로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첨단 우주산업단지와 우주산업 R&D센터, 우주과학 교육·체험장 건설 등으로 '동북아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말뼀'공약으로 남아있고 광안대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와 계획은 '투포트 정책' 폐기로 빛이 바랬다.

다만, 다도해 해상 관광권을 조성하겠다는 공약과 친환경농산물 글로벌 물류기지 조성 등은 미흡하지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와 영산강살리기 사업은 정부의 전남지역 대선 공약 중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김지희기자 dok2000@kwangju.co.kr

MB 정부·한나라 일방주의에 위기감 “정권탈환” 대통합 대장정

회고 2011

- 1 안철수 현상
- 2 '도가니' 충격
- 3 기아차 질주
- 4 영국의 5·18
- 5 아권통합
- 6 부실대학 퇴출
- 7 조선대 총장 선거 파문
- 8 무상급식과 복지 재정난
- 9 풍성한 국제행사
- 10 가거도 방파제 붕괴

'아권 통합'은 올해 정치권의 최대 이슈며 현재 진행형이다. 아권 통합 성사 여부에 따라 내년 총선과 대선 구도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우선, 아권 통합의 화두는 지난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있던 서거로 부각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일방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위기감에서 시작했다.

여기에 절충성 같은 '박근혜 대 세론'에 변변한 대선 주자조차 없었던 민주·진보 진영의 참담한 현실은 근본적인 '판의 변화'를 모색하게 만들었다.

결론은 국민적 감동을 얻인하는 '아권 통합'으로 한나라당과의 1대 1 구도를 만들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것으로 가닥 지어졌다.

하지만 민주·진보 진영의 맹목적인 민주당의 리더십 부재와 안이한 현실 인식으로 아권 통합은 올해 중반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실제로 지난 4·27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아권은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한 연대를 나섰지만 결과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지지부진한 아권 통합의 흐름에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안홍(안철수 바람)으로 나타난 시민의 '반란'이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안풍'은 경제양극화 문제(전세난, 실업난, 등폭금, 비정규직 문제 등)를 풀지 못하고 소통과 참여가 막힌 기존의 정당 정치 구조를 뒤흔들었다.

안풍의 위력은 지난 10월 지지율 5%대에 불과했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단숨에 아권 단일 후보로 만들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현실화시켰다.

또한, 안철수 교수는 '박근혜 대 세론'을 뒤 흔들며 유력한 아권의 대선 후보로 떠올랐다.

이 같은 시민의 폭발적 에너지는 민주당 등 아권에 정치적 죽비(竹拂)로 작용하며 통합 논의의 물꼬를 트게 했다.

하지만 아권 통합은 아직까지

이를 반영하듯, 민심의 상징인 안철수 교수와 박원순 서울시장에 아직까지 아권 통합의 흐름을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내년 1월 중에 민주당과 시민사회력이 문진 통합 정당과 통합진보당의 양자 구도로 아권이 재편, 오는 4월 총선에서 선거 연대를 통해 민심의 결집을 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안철수 교수의 간접적 지원 등 안풍의 아권 연대 합류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특히, 아권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여세를 몰아 차기 대선에서 아권 통합 후보를 선출, 민주·진보 연합정부 수립에 나서 것으로 정치권은 관측하고 있다.

한편, 아권 통합은 호남 정치권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아권 통합이 기존의 정치 및 지역 구도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리더십과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정치권의 변방으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대통령 17~18일 한일정상회담서 위안부 문제 거론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7~18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문제를 거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국내적으로 위안부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피해 당사자가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달라고 한 점과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이번 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문제를



日 위안부 사죄하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수교 집회 1000회를 맞아 주독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국 교민들과 독일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일내 한인 여성단체인 코레아페어밴트(대표 한정화) 회원들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폭넓게 다룬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일각에서 위안부 문제가 공식제에서 빠진 것 아니냐는 견해에 대해서도 "회담에서 거론

하면 그것이 의제가 된다"며 "공식의 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이 대통령의 방일 문제 협의차 방한한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정상회담에서 제반과거사 문제를 논의해야하고 군 위안부 문제도 예외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도저히 뭐라고 설명해줄 길이 없다

총 투자 창업자금 500만원 소자본 음식배달 사업자 모집

하루 50그릇 배달시 월 약 400만원 예상수익 대박사업

■이쁜아짐 배달사업의 장점

- 첫째 : 조리시설 거의 필요없음, 가정집이나 사무실, 점포등 약간의 빈공간이면 가능
- 둘째 : 주방장 전혀 필요없음, 맛이 아주 기가막히게 좋고 반찬까지 본사에서 납품
- 셋째 : 본사에서 완제품으로 배송, 대우기만 하면 끝, 누구나 할 수 있음
- 넷째 : 투잡도 가능, 중화요리, 치킨, 피자, 아식집등 배달업종도 전화 한대 더 놓으면 끝
- 다섯째 : 냉동 식품이 아닌 레토르트 완전살균 제품이라 음식이 완벽하게 위생적이고 실온 보관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제품입니다.



세상에 첫 선을 보인 새롭고 신선한 먹거리...

배달품목

소갈비해장국 | 뼈다귀해장국 | 소머리곰탕 | 우거지해장국 | 황태해장국 | 육개장 | 갈비탕

감자탕류

소갈비감자탕 | 뼈다귀감자탕 | 생오리감자탕

메뉴 취급점 모집

식당 | 분식점 | 배달전문점 | 야식집 | 사우나 | 골프장 등 저희 메뉴가 필요한 업소에서 전화주시면 샘플을 맛보시고 필요한 수량만 주문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맛 처음이야~" 이쁜아짐 때문에 장안이 시끌 벅적입니다. 온통 장안의 화제!!~

이쁜아짐

체인사업본부 代) 062-265-8900 본부장 직통 010-9885-2025